

기독교 탈북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김은희(국방부/병영생활상담관)**

freedom1107@hanmail.net

임창호(고신대학교/객원교수)

changholim10@gmail.com

한글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탈북청소년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 있어 기독교 신앙이 기여하는 바를 밝히는 것에 있다. 연구 방법은 내러티브를 활용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입국하여 1년 이상이 된 17세에서 24세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9명의 후기청소년이다. 연구문제는 네 가지이다. 첫째, 탈북청소년들은 탈북동기와 여정을 통해 과거를 어떻게 회고하는가? 둘째, 탈북청소년들은 현재 남한 사회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극복하면서 정체감을 확립하는가? 셋째, 탈북청소년들은 통일세대 주역으로 미래를 재구성해나갈 수 있는가? 넷째, 탈북청소년들은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며 신앙은 한국사회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청소년들의 탈북 동기와 과정에서 이들의 불안과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가 정체성 혼란을 가져오며 한국 사회 적응에 방해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둘째, 탈북청소년들의 불안정한 정착에는 가족 갈등, 세대 갈등, 죄책감과 딜레마라는 미해결 감정과 학업 경쟁, 진로 고민, 취직의 부담감, 높은 사회적 장벽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셋째, 한국 사회에서 태어난 청소년에 비해 탈북청소년들은 통일에 대한 인식이 높아 이들의 남한 사회 유입은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보완 및 발전시킨 것임

** 제1저자: 김은희, 교신저자: 임창호

통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탈북청소년들은 가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한국 사회에서 예배의 경험과 신앙과 문화와의 만남은 한국 사회 정착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청소년중 기독교 신앙인을 대상으로 그들이 남한 사회에서 정체감 형성과 적응과정에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규명하고 북한 선교와 통일을 앞두고 미래세대를 위해 일하는 모든 기독교 사역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주제어 》

탈북청소년, 내러티브 연구, 자아정체감, 기독교 신앙, 청소년 통일교육

I. 들어가는 말

최근 몇 년 동안 남북한 관계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다. 2016년 9월 제 6차 핵실험이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있었는가 하면 2018년 2월 동계 올림픽이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고 이어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나 전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2020년 6월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등 남북한 관계는 롤러코스터를 타듯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통하여 북한 사회는 점차 변하고 있다. 남한 드라마나 영화 등의 영상매체가 외부로부터 유입되기도 하고 남한에 대한 정보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 널리 전파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강동완, 2011, 126).

한국사회에 유입되는 북한주민들의 수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진행되어 온 급속한 북한의 경제적 위기 및 식량난은 북한의 사회불안을 더욱 가속화시켰고, 이러한 결과로 북한 이탈주민의 수는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였다. 200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2011년에는 연간 입국 인원이 2,000명~3,000명 수준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가 2012년 김정은 정권을 기점으로 연간 평균이 1,300명대로 감소하였고, 2019년도에는 1,047명이 입국하였다. 2020년에는 229명으로 대폭 줄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통일부 잠정 집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의 수는 33,696명이다 (통일부, 2021).

최근 가족 단위의 입국이 증가함에 따라서 탈북청소년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 이탈주민의 수가 점차 늘면서 탈북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표면적인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 실생활에서는 실제적인 접촉이 거의 없다 보니 그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실제적인 어려움을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탈북청소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회문화의 전반적인 이질성과 편견에서 비롯한 견해 및 그 차이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대개 나이 어린 청소년들은 성인 탈북자들에 비하여 문화 습득률이 높고 환경에 대한 수용과 적응이 보다 수월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탈북 청소년들은 성인 탈북자들과 마찬가지로 낮은 사회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함과 동시에, '정체감 형성과 급격한 발달'이라고 하는 청소년의 고유 발달 과업도 수행해야 하는 이중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논문 자체가 부족하지만 탈북청소년을 포함한 북한 이탈주민의 정체감 형성과정에 대한 최신 연구는 눈여겨볼 만하다. 전우택(2010)은 북한 이탈주민의 남한살이 최초의 패널 연구서로 한국 사회에 진입한 북한 이탈주민의 7년간의 삶을 추적 관찰하여 발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북한 이탈주민 중 가치관의 혼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적응은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이탈주민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와 종교기관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더 적극적 의식을 가지고 활동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을 하고 있다. 이용을(2015)은 탈북청소년들의 정체감의 모습과 변화의 경로는 개인별로 매우 다양하

고 이러한 다양성은 부적응의 단서라기보다 남한인가 북한인가 하는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정체감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체감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탈북청소년들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체감의 모습이 구분되고 선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과 교류와 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취급될 때에 이러한 여러 색깔의 정체감은 탈북청소년들의 성장 잠재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기에 본 연구자는 이에 기독교적 관점에서 신앙의 문제를 한국사회 정착 및 적응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나가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탈북청소년의 삶의 의미를 다루고 탈북청소년들의 요구를 파악해 봄으로써 그들의 심리적·정서적·사회적·영적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고 통합되는지 탐구하고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 기독교 신앙이 기여하는 바를 밝히고 그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기독교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북한은 지구상의 어느 나라보다 참인간성을 회복해야하는 지역으로 북한 선교의 최대과제는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와 참된 인간성 회복이 선교교육론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임창호, 2020, 46). ‘찾아온 통일’인 탈북청소년에 대한 이와 같은 연구는 북한선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기독교 교육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임창호, 2013).

II. 펴는 말

1. 이론적 배경

1) 탈북청소년의 정의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법의 지원과 보호를 받는 북한 이탈주민을 ‘보호

대상자'로 명명했는데 보호 대상자는 북한에서 출생해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이탈주민을 지칭하며,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탈북청소년이란 '북한에서 출생해 한국사회에 유입된 청소년'으로 제한이 된다. 하지만 탈북청소년들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북한 출생 청소년'으로 규정하였을 경우, 최근 한국에 입국한 탈북 가정의 자녀를 모두 포괄할 수가 없다.

최근에 입국하는 탈북청소년들 중에는 제3국에서 북한 출신 부모가 장기 체류하는 동안에 출생한 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소년은 법적 보호 대상자는 아니지만, 탈북주민 자녀로서 교육적·사회 복지적 배려 대상으로 간주하여 지원하고 있다(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16;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201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을 법적 보호 대상자뿐만 아니라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 주민들의 자녀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탈북청소년을 정의함에 있어 두 번째로 고려하여야 할 점이 있다면 청소년기'라는 생애주기이다. 청소년 나이에 대한 규정은 시대와 법률, 국가 및 학자마다 다른 데,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하며,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 선정기준은 청소년기본법을 적용하여 후기 청소년인 17세에서 24세까지로 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정체감 확립의 결정적 시기인 청소년 후기를 포함하므로(Erikson, 1968) 본 연구 주제를 탐색하는데 적합하다고 보았다. 정리하면 본 연구의 참여자인 탈북청소년은 '자신이나 부모가 북한에서 출생해 탈북한 후 남한에 입국한 17세부터 24세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청소년 자아정체감의 형성 요인

정체감의 형성은 장기간에 걸쳐서 정신적으로 자리 잡는 것이므로 이는 인간에게 부여된 평생의 과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과정은 복잡하

고 그 과정에서 많은 요인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다. 신체적 성숙함과 성적 성숙, 형식적 조작의 사고능력과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적절한 심리적 이유 등이 정체감 형성과정에서 의미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사미자, 2003, 383).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국환, 2000, 207-211).

첫째, 본질적인 요인이다. 자아정체감 형성 요인을 문자적 의미로 찾아볼 수 있는데 자아정체감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와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발견하는 것이며 자신의 내면에 대해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둘째, 자아통합적인 요인이다. 자아정체감은 자아통합의 과정을 통하여 형성이 된다. 즉 생득적으로 주어진 신체적 특성, 리비도(Libido)적 욕구, 특기나 노력을 통해 이룰 수 있는 목적의 성취여부, 의미 있는 대상에 대한 동일시,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승화, 효과적인 방어, 적절한 역할과 같은 요인들이 개인의 고유한 방식으로 통합화되어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환경적 요인이다. 청소년은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 몇 가지 사회적 요인을 살펴본다면 사회적인 변화는 기존의 가치관과 규범을 와해시키고 과거와 현재의 단절감을 갖도록 하며 세대 간의 공감을 훼손해 청소년들에게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조장한다.

넷째, 주변에 있는 관계적 요인이다.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은 청소년이 성장하는 환경에서 상호작용 하는 주변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즉, 청소년이 친구, 부모, 교사 및 그 밖의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가에 따라 자아정체감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형성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청소년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아직 형성하고 있지 않으며 소속감이나 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 자아를 정립해가기 때문이다.

다섯째, 종교적 요인이다, 청소년기의 종교적 특성은 아동기의 순수했던

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지적인 신앙으로 변화된다. 특히 아동기나 청소년 전기의 신앙적 매개요인들이 친구나 부모 등 비교적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하여 형성되는 반면 청소년 중기 이후로는 친구나 이성, 진로, 인생문제 또는 주변의 특수한 관심들이 신앙을 갖도록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질적 내면화의 영향에 종교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은 인생의 본질에 관하여 관심을 집중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자신들의 정체감에 대해 선포한 답변을 신앙 안에서야 비로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울러(Fowler, 1987, 141-142)는 에릭슨(Erikson, 1968)의 저서 「청년 루터」에 대하여 다루면서, 에릭슨이 정체감 형성의 요인으로 이념을 제시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에릭슨은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이념적 존재로 모든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종류이든 이념을 소유하게 된다고 보았다.

연구자는 청소년기 자아정체감과 종교의 관계에 대하여 다루면서 종교가 정체감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파울러의 신앙발달단계 이론 및 에릭슨의 발달이론에 근거한 김국환(2000)의 ‘청소년 자아정체감 형성 요인’을 토대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분석한 내용 중 한국사회 적응과 관련된 요인 및 기독교 신앙이 한국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어 연구 결과를 끌어냈다.

〈표 1〉 면담질문지

| 범주 | 면담 질문 |
|-----------|---|
| 본질적 요인 | 1. 나는 누구인가요? (첫 면담 이후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2. 삶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며 그 만족의 정도를 척도로 표현해보기 3. 현재 나의 감정 상태는 어떤가요? |

| 범주 | 면담 질문 |
|-----------------|---|
| 본질적 요인 | 4. 나의 바람은 무엇인가요? 나에게 가장 강렬한 욕구는 무엇인가요? 5.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어떤 것들인가요? 6.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여 보세요. (한국사회에서 기대하였던 것, 미래에 대한 계획 등) 7. 그 동안 나를 심리적으로 소진되게 하였던 것은 무엇인가요? 8. 나는 스트레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 환경적 요인 | 1. 탈북하게 된 동기와 탈북 후 변화에 대하여 나누어보세요. 2. 정착과정에 대하여 나누어 보세요. 3. 남북한 문화 차이를 어떻게 느꼈으며 어떻게 극복하여 나갔나요? 4. 남한 사회에 한 해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권변화를 지켜보면서 느낀 소감에 대하여 나누어주세요. |
| 자아 통합적 요인 | 1. 신체건강과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 과정은 어떠한가요? 2. 가정과 사회에서의 나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3. 내가 바라는 가정상, 결혼상은 어떤 것인가요? 4. 나의 비전에 대하여 나누어 보세요. |
| 주변 관계적 요인 | 1. 가족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2. 나에게 사회적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3.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나누어 보세요. (이상적인 부모상 나누기) 4. 그동안 경험한 사회구성원과의 관계에 대하여 나누어 보세요. 5. 내가 생각하는 우정관은 무엇이며 한국사회에서 만난 가장 친한 친구와 그렇지 못했던 친구에 대하여 나누어보세요. 6. 이 사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7. 탈북 청소년의 적응을 돕기 위해 사회나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
| 종교적 요인 | 1.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2. 하나님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경험을 나누어보세요. 3. 나는 삶의 문제를 다루는데 나의 영적 신념과 행동에서 특별한 도움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하나요? 4. 영성은 나의 삶을 움직이는 주체이며 내 삶의 대부분을 지도하고 있나요? 5. 나는 신앙과 관련하여 소그룹 모임 및 기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나요?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과 친밀한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6. 나의 행동은 신앙적인 영역의 신성하고 초월적인 힘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나요? 7. 나는 종교적 신념에서 내 삶의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고 있나요? |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클랜디닌과 코넬리(Clandinin & Connelly, 2000)가 제시한 내러티브 탐구의 기본적 틀에 해당되는 3차원적 탐구 공간, 즉 개인적·사회적인 상호작용과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의 연속성과 장소 개념으로서의 상황을 바탕으로 연구 문제를 탐색하였다. 그들의 성장과 변화의 장소인 기독교 세계관을 토대로 통일 한국시대 인재양성을 교육목표로 삼는 부산 장대현 학교와 교회 현장에서 그들과 인터뷰하면서 생애 발달사와 심리적 적응과정, 인생을 변화시킨 계기나 만남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의미에 대해 나누면서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이야기들을 담아냈다.

면담은 개방형질문으로 이루어진 반구조화된 면담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작성한 질문지는 면담 전에 읽어볼 수 있도록 하여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획된 질문이 있었음에도 면담이 진행되는 중간에 이야기의 맥락에 따라서 세부적인 질문을 추가하거나 연구 참여자가 좀 더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면담질문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경청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연구자와의 면담은 2016년 6월 9일 IRB 승인이 떨어진 이후로 해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에 걸쳐 1차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후 연구자의 사정이나 연구참여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5개월에 걸쳐 2차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거주하는 곳은 거리가 멀어서 연구 참여자 면담은 1-6회를 기준으로 하였고 사례에 따라서는 대략 1시간에서 4시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포커스 그룹인터뷰(F.G.I)는 2016년 연구참여자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1차, 2018년 2월 그룹홈에서 2차가 이루어졌다.

3. 연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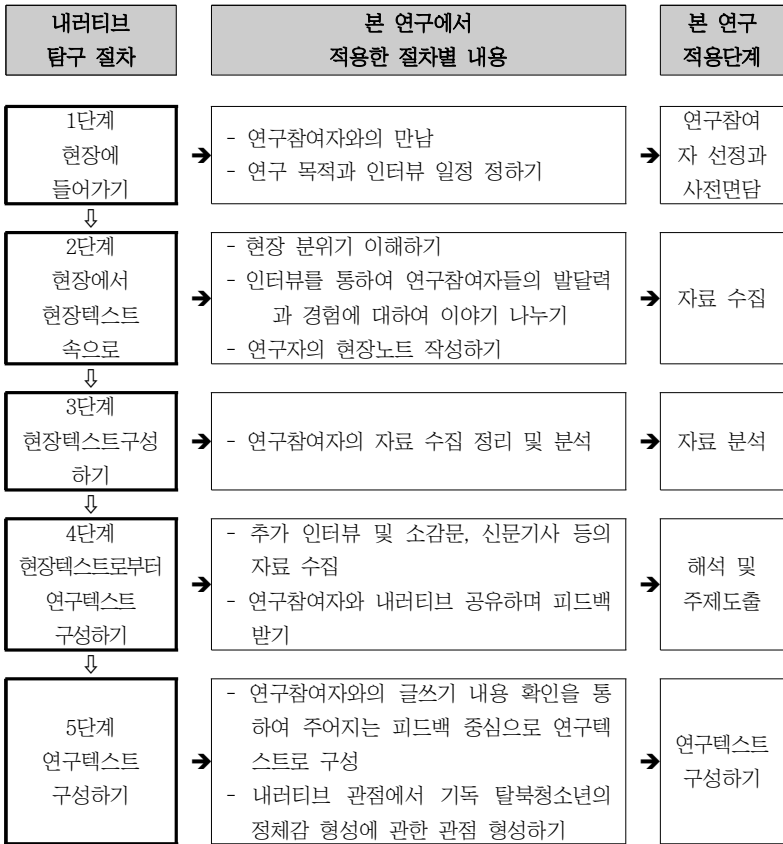
연구절차는 크게 5단계로 이루어졌는데 현장에 들어가기,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 속으로, 현장텍스트의 구성, 현장텍스트에서 연구텍스트로 구성하기, 연구텍스트의 구성하기로 구성이 되었다.

1) 단계별 구성

- ① 1단계 ‘현장에 들어가기’ 단계는 현장의 작업을 위한 준비 단계로 연구참여자를 섭외하고 선정하는 과정이다.
- ② 2단계 ‘현장에서 현장텍스트 속으로’ 단계는 현장의 분위기를 이해하고 연구참여자와 면담을 진행하며, 연구참여자들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주변 인물을 만나고 때로는 참여하면서 자료들을 수집해 나가는 단계이다.
- ③ 3단계 ‘현장의 텍스트 구성’ 단계는 연구에 활용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로서 녹취한 진행과정을 다시 녹취록으로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단계이다.
- ④ 4단계 ‘현장텍스트 분석’ 단계에서는 현장 수집한 면담의 녹취 기록을 반복적으로 검토하는 작업 단계이다. 녹음된 기록과 녹취록을 대조하면서 읽어 나가며, 녹취록에서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찾아 정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 ⑤ 5단계 ‘연구텍스트 작성’ 단계 연구 마지막 단계로서 현장에서 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주제별로 묶어 특성을 살려냄으로써 내러티브로 풀어내는 단계이다.

본 연구의 면담과 기록과 분석 과정을 그림으로 도출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본 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적용한 단계별 내용

2) 연구참여자 선정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연구참여자가 면담에 단순하게 응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연구자와 연구를 함께 진행해가는 ‘공동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는 내러티브 탐구가 연구참여자의 발달사이자 심리적 변천사이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 의지 없이는 연구 자체가 진행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의 특성을 간략히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참여자의 특징

| 사 례 | 이름 (가명) | 연령/ 성별 | 정착 횟수 | 학력 (직업) | 소속 교회 | 정착 도시 | 비고 |
|--------|------------|-----------|----------|------------|----------|----------|--------|
| 1 | 설현(*) | 20/여 | 4년 | 고졸/대입준비 | J교회 | B | |
| 2 | 지우(*) | 19/여 | 4년 | 고졸/대입준비 | J교회 | B/S | |
| 3 | 솔빈(*) | 20/여 | 4년 | 고졸/취업준비 | J교회 | B | |
| 4 | 유미(*) | 23/여 | 1년 | 대입준비 | S교회 | B/J | |
| 5 | 송이 | 17/여 | 9년 | 중학생 | S교회 | B | |
| 6 | 은강 | 17/남 | 2년 | 중학생 | S교회 | B | |
| 7 | 서연(*) | 22/여 | 14년 | 대학생 | N교회 | S | 그룹홈 거주 |
| 8 | 하윤 | 23/여 | 2년 | 대학생 | N교회 | S | 그룹홈 거주 |
| 9 | 아영 | 21/여 | 9년 | 대학생 | N교회 | S | 그룹홈 거주 |

※ 연구참여자 이름 우측(*)은 주요 연구 참여자임(청소년 9명 중 5명을 선정하여 1년 이후의 적응과정을 추가 면담하였음).

개인 심층면담 과정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개인 및 집단 심층 면담 과정

| 참여자 | 일시 | 횟수 | 소요시간 | 전사자료 및 메모분량(쪽) |
|-------|------------------|----|--------|----------------|
| 설현(*) | 2016년 07월 11일 | 1 | 92:02 | 23 |
| | 2017년 11월 13일 | 2 | 80:25 | 37 |
| | 2017년 11월 20일 | 3 | 53:32 | 21 |
| | 2017년 12월 18일 | 4 | 60:12 | 27 |
| 지우(*) | 2016년 07월 12일 | 1 | 80:00 | 20 |
| | 2017년 11월 09일 | 2 | 51:36 | 24 |
| | 2018년 02월 02일*** | 3 | 193:26 | 80 |
| | 2018년 02월 11일 | 4 | 49:09 | 11 |

| 참여자 | 일시 | 횟수 | 소요시간 | 전사자료 및 메모분량(쪽) |
|-------|------------------|----|--------|----------------|
| 솔빈(*) | 2016년 07월 20일 | 1 | 150:00 | 47 |
| | 2017년 10월 15일 | 2 | 75:46 | 36 |
| | 2017년 10월 19일 | 3 | 96:36 | 43 |
| | 2017년 11월 19일 | 4 | 85:15 | 37 |
| | 2017년 11월 30일 | 5 | 74:56 | 32 |
| | 2018년 02월 11일 | 6 | 47:09 | 11 |
| 송이 | 2016년 7월 23일 | 1 | 30:05 | 15 |
| 은강 | 2016년 7월 23일 | 1 | 90:00 | 14 |
| 유미(*) | 2016년 7월 26일 | 1 | 180:00 | 40 |
| | 2017년 10월 20일 | 2 | 90:00 | 31 |
| | 2017년 10월 28일 | 3 | 105:58 | 28 |
| 서연(*) | 2016년 9월 11일** | 2 | 42:56 | 11 |
| | 2016년 9월 20일 | | 60:05 | 17 |
| | 2018년 02월 02일*** | 3 | 193:26 | 80 |
| 하윤 | 2016년 9월 11일** | 2 | 42:56 | 11 |
| | 2016년 9월 16일 | | 30:05 | 12 |
| 아영 | 2016년 9월 11일** | 2 | 42:56 | 11 |
| | 2016년 9월 20일 | | 31:02 | 12 |

※ 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은 개인 면담으로 분류하여 넣었음(2016. 9. 11. 3명, 2018. 2. 2. 2명).

코딩수와 빈도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영역별로 본 코딩수와 빈도

| 범주 | 주요영역 | 코딩수 | 빈도(%) |
|-----------------------|---------------|-----|-------|
| 탈북 동기와 과정에 관한 내러티브 | 냉대와 해체의 땅, 북한 | 78 | 7.1 |
| | 희망이 없는 나라 | 29 | 2.7 |
| | 부모님 따라 왔어요 | 22 | 2.0 |
| | 제 3국에서의 경험 | 82 | 7.5 |

| 범주 | 주요영역 | 코딩수 | 빈도(%) |
|--------------------------------|---------------|-------|-------|
| 한국에서의 심리적 적응과 이해결과제 내러티브 | 하나원에서의 의미 | 13 | 1.2 |
| | 또 다른 차별과 냉대 | 46 | 4.2 |
| | 사회적 장벽 | 76 | 7.0 |
| | 불안정한 정착 | 112 | 10.3 |
| | 한국에서 산다는 것 | 87 | 8.0 |
| | 죄책감과 삶의 딜레마 | 68 | 6.2 |
| | 탈북자간의 연계 | 51 | 4.7 |
| 내가 꿈꾸는 사회와 통일에 관한 내러티브 | 내가 꿈꾸는 가정 | 36 | 3.3 |
| | 통일을 기다리며 | 118 | 10.8 |
| | 비전의 실현 | 51 | 4.7 |
| 기독교 신앙에 관한 내러티브 | 내 인생을 변화시킨 만남 | 60 | 5.5 |
| | 기독교 문화와의 충돌 | 59 | 5.4 |
| | 기독교 신앙의 의미 | 104 | 9.5 |
| 합계 | | 1,092 | 100 |

4. 연구결과

총 708페이지 분량의 전사 자료를 읽어가면서 개념을 잘게 쪼개고 코드를 매겨나갔다. 그 결과 548개의 개념, 61개의 하위 영역, 17개의 주요 영역, 4개의 범주를 도출하게 되었다. 원자료의 범주화 과정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영역별로 본 코딩수와 빈도

| 범주 | 주요 영역 | 하위영역 | 코딩수 |
|------------------|---------------------|-------------------------------|-----|
| 탈북 동기와 과정에 | 냉대와 해체의 땅, 복한 | 정서적 냉대: 눈치밥과 손가락질 | 27 |
| | | 가정의 위기: 남편들이 돈을 못 버니까 | 16 |
| | | 사회적 감시체제: 왜 이렇게까지 막을까? | 11 |

| 범주 | 주요 영역 | 하위영역 | 코딩수 |
|------------------------------|---------------------------|--|-------------------------------|
| 관한 내러티브 | | 경제적 빈곤: 꽃제비가 된 아이들 | 13 |
| | | 권력의 부패: “적십자 쌀을 사 먹었어요.” | 11 |
| |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라 | 인권말살: “누가 누구를 변호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 7 |
| | | 사회적 통로의 막힘: 반역자 집안의 딸 | 13 |
| | | 정치적 회의감: 정치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 9 |
| | 부모님 따라 왔어요 | 중국에 대한 동경: 중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해서 | 5 |
| | | 한국에 대한 환상: 한국은 드라마 속 같은 꿈의 현실? | 4 |
| | | 꿈을 찾아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말에 혹해 | 7 |
| | | 부모의 권유: 아빠의 협박에 의해서? | 6 |
| | 제 3국에서의 경험 | 고난과 극복: 북송의 긴장 속에서 | 51 |
| | | 인신매매: 시집에 팔려간다는 걸 알면서도 | 22 |
| | | 신앙을 접함: 하나님과 관련된 책? | 9 |
| | 한국에서의 심리적 적응과 미해결 과제 내러티브 | 하나원의 의미 | 남한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엄마 목소리를 들었을 때 |
| 신앙을 처음 접한 곳: 십자가 목걸이가 갖고 싶어서 | | | 7 |
| 또 다른 차별과 냉대 | | 환상의 깨어짐: 막상 와 보니 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었고 | 6 |
| | | 탈북자라는 편견: 탈북자라는 색안경 | 32 |
| | | 취약자의 고충: 쉬는 날도 없이 | 4 |
| | | 다문화 인식: “다문화 속에서 우리를 구분하는 게 차별이라고 생각하죠.” | 4 |
| 사회적 장벽 | | 언어 장벽: “은어를 많이 쓰잖아요.” | 8 |
| | | 학습 장벽: “따라가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 33 |
| | | 문화 장벽: 한국 아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 35 |
| 불안정한 | | 가족 갈등: 저한테는 왜 아빠가 두 명이고 엄마 | 23 |

| 범주 | 주요 영역 | 하위영역 | 코딩수 |
|------------------------|------------|---|-----|
| 내가 꿈꾸는 사회와 통일에 관한 내러티브 | 정착 | 가 두 명인지 | |
| | | 세대 갈등: “부모님이 대개 보수적이세요.” | 39 |
| | | 사회 부적응: “폐인처럼 살았어요.” | 35 |
| | 한국에서 산다는 것 | 경제적 어려움: “집세, 핸드폰비 나갈 게 많아요.” | 15 |
| | | 학업 경쟁: 경쟁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 36 |
| | | 진로 고민: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 27 |
| | 죄책감과 딜레마 | 취직의 부담감: “취업 고민이 많아요.” | 24 |
| | | 북한에 두고 온 가족: 죄책감이 있어요. | 15 |
| | | 중국에 두고 온 자녀: 보고싶다기 보다는 미안하다는 마음 | 16 |
| | 탈북자간의 연계 | 삶의 딜레마: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를 포기 해야겠죠.” | 37 |
| | | 멘토가 되어 줌: “제가 담임선생님한테 하는 모습이랑 똑 같거든요.” | 17 |
| | | 경험과 정보의 공유: 정착과정에서 도와준 사람들도 많고요 | 14 |
| | | 탈북자 간의 견제: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 | 20 |
| 내가 꿈꾸는 사회와 통일에 관한 내러티브 | 내가 꿈꾸는 가정 | 존중과 배려가 있는 가정: “결국은 사랑인 것 같아요.” | 14 |
| | | 가부장적이지 않은 가정: 서로 억압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고 | 7 |
| | | 하나님 중심의 가정: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 15 |
| | 통일을 기다리며 | 북한의 현 실정 알리기: 북한도 알려져야 해요. | 17 |
| | | 교량 역할: 북한의 현실정을 알리는 다리역할 | 16 |
| | | 북한 선교: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에 다시 가는 거거든요.” | 12 |
| | | 고향에 대한 그리움: “탈북 하던 그 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 35 |
| | | 통일인식 확산: 통일에 걸 맞는 의식 일깨우기 | 28 |

| 범주 | 주요 영역 | 하위영역 | 코딩수 |
|-----------------|---------------|---|-----|
| | 비전의 실현 | 남북한 청소년 교류: “한국 학생들과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 10 |
| | | 하나님을 경험함: 하나님을 만났으니 | 28 |
| | | 봉사하는 삶: “누군가를 위해 삶을 살고 싶어요.” | 20 |
| | | 비전 트립: 비전트립을 통해 독수리 인생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 3 |
| 기독교 신앙에 관한 내러티브 | 내 인생을 변화시킨 만남 | 편견 없이 대해 줌: 크게 신기해 하지도 놀라지도 않고 | 13 |
| | | 깊은 배려와 관심: 먼저 다가와서 “같이 있어 줄래?” 말해 줄때 | 7 |
| | | 바르고 정직한 기독교인: 바르게 살고 정직한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 16 |
| | | 변하지 않는 헌신: “알고 보니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 19 |
| | | 진실된 상담자: “상담사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없었을 거예요.” | 5 |
| | 기독교 문화의 충돌 | 인문학 서적과 영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 | 19 |
| | | 기독교 기관의 커리큘럼: 앙트쉽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 27 |
| | | 기독교 지도자와의 만남: 한국 사람도 아닌 사람이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하는데 | 13 |
| | 기독교 신앙의 의미 | 희망이자 삶의 안전장치: “나에게 소망을 주었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게 다 바뀐 것 같아요.” | 18 |
| | | 삶의 변화를 끌어냄: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으로서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 21 |
| | | 사회적 관심의 확대: 그런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다양한 관심의 폭 | 27 |
| | | 신앙생활의 정착: 신앙 훈련과 세상 속에서의 싸움 | 38 |

1) 탈북동기와 과정에 대한 회고적 내러티브: 탈북동기와 과정을 통해 과거를 어떻게 회고하는가

연구자가 만난 주요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내 여느 청소년 못지않게 재치와 입담이 있었으며 생명력이 넘쳤다. 그러나 이들의 살아온 삶의 이야기에 는 한국 청소년들로서는 일상적으로 겪기 쉽지 않은 트라우마와 고통이 깔려 있었다. 주승현(2017)은 북한 인권 문제와 남북통일의 밀접한 상관성의 의미를 통해 통일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이들은 북한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과 트라우마를 경험했는데 가족의 해체, 재혼으로 인한 가족갈등, 세대갈등, 아동방임과 학대 형태의 가족문제를 보이고 있었다. 탈북을 시도하다가 복송된 경우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권유린을 당하기도 했다. 인신매매에 대한 증언은 재중 탈북여성의 삶과 인권에 대한 논문이나 기고에 잘 드러나 있다. 강동완(2018)은 재중 탈북여성의 삶과 인권에 대한 기고문을 많이 썼는데 재중 탈북 여성이 생활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호구(호적)가 없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언제든지 복송 위기에 처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증언을 담고 있다. 이들은 중국인들에게 호구가 없는 ‘검은 사람’으로 불리며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강동완, 2018, 131-132). 연구자가 만난 한 연구참여자는 재중 탈북여성으로서의 고통과 정체성 혼란을 증언하였다.

경찰이 뜰 때마다 자는 척 해야 하고 아니면 구토를 원래 좀 하지만 멀미를 하지만 그 때는 강제로 하든 어쨌든 그 순간을 모면해야만 하거든요, 한명이라도 걸리면 함께 가던 모든 사람들이 다 걸려서 다시 복송되는 거죠. 엄청 긴장해 있어야 하고 어딜 가든지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중략) 화장실도 못 가고

(술빈 면담, 2016.7.20)

중국에 팔려간 거였거든요. 인신매매단에... 중국에 보내주면 식당가서 일할 수도 있고 일자리 소개해준다고...저는 알고 있었지요. 시집에 팔려간다는 걸 알면서도 할 수 없이 그렇지 않으면 북한에서 탈출할 방법이 없

으니까... 그 사람과 사는 그 생활이 (중략) 그 집에 살 마음은 없었어요.
애 볼 때는 그런 생각 드는데 그 사람만 보면 지옥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미 면담, 2016.7.26)

2) 한국에서의 심리적 적응과 미해결과제 내러티브: 현재 남한 사회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극복하면서 정체감을 확립 하는가

연구참여자들은 하나원에서 경험 후 한국사회에서 차별과 또 다른 냉대, 언어 장벽, 학습 장벽, 문화 장벽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다문화시대에 적합한 기독교 통일교육의 실천방안을 보편적 학습설계를 통해 소개함으로써 구체적 체계를 제시한 연구로 김성결과 안미리(2020)의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에 의하면 학습은 탈북청소년의 적응에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그 밖의 불안정한 정착 이면에는 가족 갈등, 세대 갈등, 부모와 청소년의 사회부적응 및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었다. 이들은 학업경쟁, 진로고민, 취직의 부담을 안고 있었으며 북한과 중국에 가족을 두고 온 이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탈북자들에 대한 시선조차 많이 뜨거웠고.. 사람들이 별로 반기지 않았었고... 어딜 가거나 **탈북자라는 색안경 때문에...** 무시를 많이 당했고 욕도 많이 들어왔고 탈북자로 오면 다 겪는 그런 일들을... 북한에서 온 아이라고 궁급해 해서 하는 질문들이 대개 스트레스였어요.

(솔빈 면담 2017.11.19)

3) 내가 꿈꾸는 사회와 통일에 관한 내러티브: 통일세대 주역으로 미래를 재구성해나갈 수 있는가?

탈북청소년들은 어려운 가정사를 겪어 왔기에 한국 사회에서 ‘안정된 가정’에 대한 열망이 아주 컸다. 한편으로 가정에서 폭행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결혼에 대한 상이 어둡기는 했지만 기독교 신앙 안에서 회복 될 수 있

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가 경험한 가부장적인 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성역할이 좀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가정상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있었다. 비전이 동일하고 포용적인 사람, 봉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을 이상적인 배우자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설현(면담, 2016.7.11)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 만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로 선 아이들로 키우고 싶어요.”라고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미래라는 시간개념 속에 '통일'이라는 개념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이 '먼저 온 통일'로 자신들을 예비하셨다고 믿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에서 북한의 현(現) 실정을 알리고 통일에 대하여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통일은 현실과 직결된 내일이자 미래였다. 내일이라도 통일이 된다면 친구와 친척들을 만나러 고향에 당장 가고 싶다고 했다. 설현(면담, 2016.7.11)은 자신이 북송의 경험이 있었기에 탈북에 실패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의 현 실정을 알리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다.

연구참여자들이 비전을 소유하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들은 기독교 대안학교(부산 장대현학교)나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교사들에게 보이는 헌신적인 모습이나 일상 속에서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다. 솔빈(면담, 2017.11.19)은 “그 노래 듣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상황이나 문제가 달라진 것은 없는데 뭔가 내면의 변화가 느껴져요.”라고 말하면서 찬양을 통해 위로를 받고 있었다.

하나님을 경험한 연구참여자들은 한결같이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했다. 솔빈(면담, 2017.11.19)은 “나같이 옛날에 내가 그 나이에 겪었던 일이 생각나면 그 친구 꼭 나같다,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서 직장생활이 정착되면서 기부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었다. 연구자가 소개 받아 면담을 하게 된 당시 17세의 두 청소년 중 한 명은 남학생이었는데 입

국 후 구원의 확신조차 없었지만 어머니의 권유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다. 하지만 그 해 8월 네 개국(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을 다녀 온 이후의 변화는 괄목할 만하다.

저는 처음에 단기 선교를 원해서 간 게 아니고 엄마에게 떠밀려서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중략) 우리가 묘족 공동체에 간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비까지 내려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치앙마이에 있는 몽골 아이들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독수리 인생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강 개인문자, 2016. 8. 25.)

4) 기독교 신앙에 관한 내러티브: 기독교신앙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며 신앙은 한국 사회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탈북청소년들은 처음에는 개인적 동기에서 탈북을 하였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접하면서 역사와 사회, 봉사에 대한 관심 및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관심사가 확대되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점차 그들의 정체감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형성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 가듯이 그들은 가치관도 성격도 비전도 철학도 변하고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과정에는 진실된 태도로 대해준 기독교인과의 만남이 있었다.

(1) 편견없이 대해 줌 : *크게 신기해하시지도 않고 놀라시지도 않고*

서연(면담, 2016.9.11)은 편견없이 대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않고 말했다. 그녀는 “크게 신기해하시지도 않고 놀라시지도 않고 언제 왔냐고 물으시고 학교 가려고 한다니까 하니까 대개 열심히 해주셨어요.” 하고 담임선생님에 대해 회고하였다. 최성훈(2016)은 그의 논문에서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탈북청소년의 사회적응 뿐만 아니라,

통일시대를 선도하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과 헌신의 교육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솔빈(면담, 2016.7.20)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준 신앙인들로 인해 삶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 북한의 감시체제 속에서 살아왔던 탈북청소년이 마음을 열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솔빈은 그렇게 마음을 여는데 일 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고 회고했다. 이는 대안학교 교사들의 헌신에 기반을 두고 있다.

(2) 깊은 배려와 관심 : *먼저 다가와서 '같이 있어줄래?'하고 말해줄 때*
솔빈(면담, 2016.7.20)은 마음을 열고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 대안학교의 교사 때문이었다고 회고한다. 그녀는 선생님이 검정고시 합격했을 때 엄마 아빠처럼 기뻐해주고 먼저 다가와서 **'같이 있어줄래?'하고 말해줄 때** 정말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3) 정직한 그리스도인: *바르게 살고 정직한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지우(면담, 2016.7.12)는 한국에 입국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아 장대현학교 1기생으로 입학한 후 교사와 자원봉사자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그녀는 **'바르게 살고 정직한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믿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면서 마음을 열게 되었다고 회고했다.

(4) 변하지 않는 헌신 : *알고 보니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아영(면담, 2016.9.20)은 같은 교회에서 리더로 일하셨던 교회 선생님의 변하지 않는 헌신을 보고 가족과 학생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일관성 있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델링을 삼게 되었다고 한다. 지우(면담, 2016.7.12)는 **"알고 보니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하고 말을 하면서 그 분들의 태도에 경계를 풀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5) 진실된 상담자 : *"상담사 선생님이 아니었다라면 저는 없었을 거예요."*
솔빈(면담, 2016.7.20)은 하나센터 상담사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녀는 4년 동안 개인적인 돌봄을 받으면서 상담 선생님은 자신의 눈만 봐도 마음을 안다고 하면서 **"상담사 선생님이 아니었다라면 저는 없었을 거예요"**

요.”하고 말했다. 특히 자살 시도를 하였을 때 현장까지 달려와 주시고 기도해주셨기에 지금의 자신이 존재할 수 있다고 회고했다.

5) 내러티브2: 기독교 문화와의 충돌

(1) 인문학 서적과 영화 :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듯하면서도 감동적인*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변화에는 사람과의 만남도 있었지만 문화와의 만남이 있었다. 이들은 전기(傳記)를 통해 비전을 가지게 되고 문학작품과 영화를 통해서도 삶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영국의 설교가이자 작가인 존 번연(John Bunyan)이 쓴 책인 <천로역정>과 같은 문학 서적, 인문학 서적을 통해 자기 삶을 성찰하기도 했다. 설현은 <선 오브 갓>(벤허) 등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고 했다.

설현(면담, 2016.7.11)은 “선오브 갓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걸 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듯하면서도 감동적인* 그냥 믿어줘요.”라고 했다. 대안학교에 봉사활동을 하러 오시는 선생님들이 전해주는 책이나 영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겨났다고 했다.

(2) 기독교 기관의 커리큘럼 : 앙트쉽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연구참여자들의 신앙의 성숙과 삶의 변화 그 이면에는 기독교 교육기관의 커리큘럼이 있다. 그들은 앙트쉽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과 기부의 경험을 했다고 한다.

앙트쉽 프로그램이라는 창업교육이었어요. 창업교육인데 미션으로 너희에게 얼마만큼의 자금을 줄 테니 돈을 벌어요라는 거였는데 우리 팀 같은 경우에 (중략) 컴페션에 기부를 했었거든요. 기부를 통해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거죠. 얼마만의 위치가 되면 기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자연스럽게 품게 되고 후원의 밤을 통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체험하다보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 F.G.I. 2018.2.2.)

(3) 기독교 지도자와의 만남 : *한국 사람도 아닌 사람이 북한 인권을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삶의 변화에는 기독교 지도자와의 만남이 있었다. 지우
(면담, 2016.7.12)는 수잔 솔티 여사의 강연을 들으며 **“어떻게 한국 사람도
아닌 사람이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하는 데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구나.”하고
자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를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미국에 북한 인권문
제를 알리기 위해 다녀온 후였다.

6) 내러티브3: 기독교 신앙의 의미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 ‘신앙의 의미’는 매우 컸다. 그들은 신앙이라는
게 참으로 신기한 것 같다고 했다. 대개 힘들고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
희망’이 되어 주는 것이 신앙이었다고 했다. 스스로 비관하고 자신이 낙오
자라고 여기질 때 더욱 힘이 되어 주는 것이 신앙이었다고 했다.

(1) 희망이자 삶의 안전장치 : *나에게 소망을 주었고*

설현(면담, 2016.7.11)은 “희망요. 삶의 안전장치이기도 하고. **나에게 소망
을 주었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게 다 바뀐 것 같아요.”하고 고백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밝혔다.

(2) 삶의 변화를 끌어냄 :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으로서 더 바르게*

여느 청소년이 다 그렇듯이 대학을 가고 새로운 사회와 문화를 접하게
되면 가치관의 혼란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연구자가 만난 연구 참여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기독교 세계관과 그렇지 않은 세계관이 만났을 때 혼란스럽
기는 하지만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고뇌하며 삶을 대하는 태도가 드러나
고 있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안달복달 하면서 사는 게 맞나 **어떻게 하면 좀 더
크리스찬으로서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영
향을 끼치기 위해서라도 내가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겠고 (중략) 신앙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대학생 F.G.I.2018.2.2)

(3) 사회적 관심의 확대 :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연구참여자들의 변화 중에 하나는 사회적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학업만 아니라 점차 관심 분야를 넓혀 나가면서 난민과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넓혀 나갔다.

학업에만 묻혀있지 말고 나의 관심 분야를 넓혀갈 수 있는... 다양한 난민과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 대개 어려운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다양한 관심의 폭을 넓혀보고 싶다는 바람이 있죠.

(대학생 F.G.I. 2018.2.2)

(4) 신앙생활의 정착 : *신앙 훈련과 세상 속에서의 싸움*

하윤(면담, 2016.9.16)은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하여 **“신앙 훈련을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의 싸움이니깐요.”**하고 말했다. 일주일에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미용실에서 일하다 영적 침체에 빠져 살던 솔빈(면담, 2016.7.20)은 기독교 업체에 재취직하였다. 이후 주일 예배를 안정적으로 드리면서 일상에서 늘 찬양 듣는 것을 생활하면서 안정된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었다. 더구나 2차 면담 때는 일상 속에서 예배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성숙된 면모를 보여주었다. 설현(면담, 2017.2.18)은 “아침에 큐티로 시작하고... 제자훈련...성경공부하고... 수업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마칠 때 기도로 마치고 (중략) 이대로 신앙을 잘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어요.”하고 말했다.

통전적 예배란 전인적으로 드리는 예배이며,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이다. 이는 완전하게 이루어질 구원의 성취를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 오늘을 이기는 힘으로 사는 예배이다(강용원, 2012, 100). 연구참여자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신앙생활이 정착되어 가는 모습이 보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이 정착되어가고 있었는데 이는 삶을 떠나서 결코 생각해볼 수 없는 영역이라

고 생각된다. 이들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한국 사회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Ⅲ. 나가는 말

본 연구의 목적은 탈북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사회적·영적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탐색하고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 기독교 신앙이 기여하는 바를 밝히는 것에 있다.

적응과정에서 정체감의 혼란을 겪고 있는 탈북청소년들에게 에릭슨의 발달이론과 파울러의 신앙발달단계 이론에 근거한 김국환(2000, 207-211)의 ‘청소년 자아정체감 형성 요인’의 이론을 토대로 면담을 진행한 후 한국사회 적응과 관련하여 개념을 도출하였다. 연구 방법은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입국한 지 1년 이상 된 17세에서 24세에 해당하는 후기 청소년으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남자 청소년 1명과 여자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심층 면담과 관찰, 소감문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분석 결과 61개의 하위 영역, 17개의 주요 영역, 4개의 범주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연구문제는 네 가지이다. 첫째, 탈북청소년들은 탈북동기와 여정을 통해 과거를 어떻게 회고하는가? 둘째, 탈북청소년들은 현재 남한 사회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는가? 셋째, 탈북청소년들은 통일세대 주역으로 미래를 재구성해나갈 수 있는가? 넷째, 탈북청소년들은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며 신앙은 한국사회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청소년들의 탈북 동기와 과정에서 이들의 불안과 우울, 외상후 스트레스가 정체감 혼란을 가져오며 한국 사회 적응에 방해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둘째, 탈북청소년들의

불안정한 정착에는 가족 갈등, 세대 갈등, 죄책감과 딜레마라는 미해결 감정과 학업 경쟁, 진로 고민, 취직의 부담감, 높은 사회적 장벽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셋째, 한국 사회에서 태어난 청소년에 비해 탈북청소년은 통일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넷째, 탈북청소년들은 가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한국 사회에서 예배의 경험과 신앙과 문화와의 만남은 한국 사회 정착에 큰 도움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제한점을 바탕으로 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가 특정 인원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좀 더 다양한 성별과 연령과 다양한 영역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며 불안과 우울, 트라우마 등 심리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그들이 사회적 장벽으로 인식하는 문제에 대하여 토의하고 문제를 해결해갈 담론의 장이 필요하다. 셋째, 탈북청소년들과 한국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실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탈북청소년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체감의 모습이 구분되고 선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청소년들과 서로 공존과 교류와 소통이 가능한 것이 되도록 한국교회가 커리큘럼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동완 (2011). 한반도 통일 시대의 준비: 분단 관리를 넘어 적극적 평화를 향해. **북한**, 469, 125-131.
- [Gang, D. W. (2011). Preparation for the unification era of the Korean peninsula, *BukHan*, 469, 125-131.]
- 강동완 (2018). 중국거주 탈북 여성의 삶과 인권: 탈북여성들은 중국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북한**, 555, 131-135
- [Gang, D. W. (2018). Life and human rights north Korean refugee woman residing in China: How do north Korean refugee woman live in China? *BukHan*, 555, 131-135.]
- 김국환 (2000). 청소년 자아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성결신학연구**, 5(1), 207-211.
- [Kim, G. H. (2000). A study on the formation of adolescent self-identity. *Sungkyul Theology Research*, 5(1), 207-211.]
- 김성결, 안미리 (2020). 다문화시대 기독교통일교육에 대한 보편적학습설계(UDL) 적용 제고. **기독교교육논총**, 63, 407-433
- [Kim, S. G., An, M. R. (2020).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UDL to Christian unification education in the era of multiculturalism.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3, 407-433]
- 김영천 (2015). **질적연구방법론 II: Methods**. 경기: 아카데미프레스.
- [Kim, Y. C. (2015).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II: Methods*. Gyeonggi: Academy Press]
- 강용원 (2014). **통전적 기독교교육과 상담사역**. 서울: 기독교관.
- [Gang, Y. W. (2014). *Holistic Christian education & counseling ministry*. Seoul: Kidok Hankyo Press.]
- 김정원(2016). 2주기 탈북청소년 종단연구(I). 한국교육개발원.
- [Kim, G. W. (2016). 2nd cycle longitudinal study of north Korean defector youth(I).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김형주 외(2014). 남북한 청소년의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1): 한국청소년정책

책연구원.

[Kim, H. J., et al. (2014). A study on exchange and mutual understanding of youth in south and north korea(1):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박아청(1984). 자아아이덴티티에 관한 조작적 연구의 방향과 과제. **교육학연구**, 22(2), 83-98.

[Park, A. C. (1984). Directions and Tasks of Operational Research on Identity. *Pedagogical Research* 22(2), 83-98]

사미자 (2003). 청소년기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고찰. **장신논단**, 20, 371-394.

[Sa. M. J. (2003). A Study on the Formation of Identity in Adolescence. *Presbyterian Forum*, 20, 371-394.]

오영범·이현철·정상원 (2016). **질적자료분석: 파랑새 2.0 소프트웨어**. 경기: 아카데미 프레스

[O. Y. B., Lee, H. C., Jung, S. W. (2016). *Qualitative data analysis: Bluebird 2.0 software*. Gyeonggi: Academy Press]

이용을 (2015), 탈북청소년의 정체감 형성에 관한 연구. 공공사회연구.

[Lee. Y. E. (2015). A study on the formation of ident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Public Social Research Association]

이춘재 (1988). **청년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Lee. C. J. (1988). *Youth psychology*. Seoul: Chungang Jeogseong Press]

임창호 (2013). 한국교회 북한선교의 현황과 한계, 그리고 기독교교육적 접근의 새로운 모색. **기독교교육논총**, 33, 267-297.

[Lim. C. H. (2013). The present situation and limitations regarding north korean evangelism - Exploring a new approach based on Christian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3, 267-297.]

임창호 (2020), 교육선교로서의 북한선교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64, 46

[Lim. C. H. (2020). A study on north korean missions as Christian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4, 46.]

전우택 외 7명 (2010). **통일 실험, 그 7년**. 파주: 한울 아카데미.

- [Jeon. U. T. et al. (2010). *Unification experiment, 7 years*. Hanul Academy.]
- 주승현 (2017). 북한 인권 문제와 통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50, 261-290
- [Joo. S. H. (201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rights problems in north korea and reunifi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0, 261-290]
- 최성훈 (2016). 교사의 다문화 역량과 탈북청소년 대상 기독교대안교육. **기독교교육논총**, 47, 255-311.
- [Choi. S. H. (2016). The multicultural competence of teachers and Christian alternative education for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7, 255-311.]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 Bass Publishers.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owler, J. W. (1987). **신앙의 발달단계**. 사미자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원저 1981년 출판)
- [Fowler, J. W. (1987). *Stages of Faith*. (M. J. Sa, Trans), Seoul: Publisher of GAPCK. (Original work published 1981).]

Abstract

**A Narrative Study on the Adaptation
of Christian North Korean Adolescents to
Korean Society**

Eunhee Kim

Counselor, Korea Ministry National of Defense

Changho Lim

Visiting Professor, Kos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contribution of Christian faith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self-identity and stably settling in the process of North Korean youth settling in Korean society. The research method used narrative.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nine late youth who belonged to the church, aged 17 to 24 years old, who had been in Korea for more than one year. Through this study, themes were derived from four categories. First, a retrospective narrative of the North Korean defection motive was dealt with. Second, it deals with the psychological adaptation process and unsolved tasks. Third, I dealt with the thoughts of the family, the discourse and vision for unification, which they dream of in Korean society as Christian believers. Fourth, it is about the Christian faith, and it is said that the Christian faith gives North Korean refugee youth the power to reflect on their lives, and to see the essence of life through the values of interest in others, history, society, and the kingdom of God. These results are based on the encounters with church and alternative school leaders and various curriculums that North Korean refugee youth experience and talk about. In the sense that it seeks and suggests a new direction in the era of preparation for unification, this article can be said to be of great value for Christian education.

《 **Keywords** 》

North Korean refugee youth, Narrative research, Self-identity, Christian faith, Youth unification education

- 투고접수일 : 2021년 5월 12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6월 27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6월 27일